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4년 3월

선교편지 제 6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디고스 지역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위한 준비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구매 절차를 잘 마친 후에, '토지 명의 변경' (Title Transfer) 절차를 위하여 토지 구매 계약서를 들고 각 관련 관공서들을 직접 방문하며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예상한 대로 아직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기간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부터 밤에 잠 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하는 질문과 기도가 마음 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앞서서, 저희의 마음이 잃어 버린 양들을 애써서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해 달라는 기도로 간절합니다. 학원 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이 감당하는 학생들과 교회가 위치할 마을 주민들 및 어린이들이 그전보다 얼마나 더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치 모두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시 135:1,2)**

그런데 교회 설계를 위해서 현지 건축 설계사와 협의를 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저희의 그릇된 선입견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축비가 매우 저렴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해 보니, 결코 저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운송비까지 감안하면 도시보다 자재 값이 더 비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현지인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나무와 블럭으로만 교회를 건축한다면, 그다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제대로 된 자재와 공법을 따라 건축을 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다고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교회는 저희의 완벽한(?) 계획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 서거나, 부풀리어 저서 허망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아름답게 보이는 저의 계획과 꿈조차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든든히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확신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 19:21)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많은 현지 건축 설계사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고려한 저희들의 계속되는 변경과 수정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며 성실하게 대응을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이곳 건축 담당자들에게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한걸음 한걸음 헤쳐 나가기 참으로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 무거워서 힘이 부칠때, '무게'를 나눌 수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이곳에 함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쉬운 가운데 그리운 많은 얼굴들이 떠 오르지만, 서로들 처한 위치만 다를 뿐 선교를 향해 맡겨주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곳 선교지에 세워져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대하 5:2)



디고스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스파마스트 대학과 마띠 고등학교의 '교실'과 '강의실'에서 매주 학생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학교 교실은 별도의 공간에 책걸상이 있다는 것일 뿐, 전기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칠판에 글을 쓸 백묵조차 없는 환경 가운데 성경 공부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별도로 준비해 가야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제 자동차는 마치 방물장수의 보따리처럼 학원 사역을 위한 다양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교실내의 전기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옆방에 연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히 긴 길이의 '전원 케이블' 두 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와 '프로젝터'는 기본이고, 앰프가 부착된 '스피커'와 정전을 대비하여 충전된 별도의 소형 스피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화면용으로 '흰색 천'과 조명을 위한 '검은색 천'들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부할 내용을 '차트'로 만든 것들도 가지고 다닙니다. 천들과 차트를 벽에 부착 시키기 위한 '압정'이나 '못' 같은 것도 가지고 가야하고, '백묵'과 '칠판 지우개'까지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필요로하는 '필기 도구'와 '노트'까지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간식'과 '음료수'를 매주 다양한 메뉴로 준비해야 하고, 매주 성경을 잘 암송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선물'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풍성하게 드리기 위한 악기들로서 '기타'와 '키보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는 가장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새로운 '노래'를 습득하는 방법과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소위 오션지의 '악보'를 이해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음악은 물론이고 성악이나 악기 연주를 위한 공부를 했는지의 여부는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방식과는 달리 악보가 없어도 이들 나름의 방법으로 음악을 배우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음악에는 소위 '애드립' (Ad Lib)의 본 뜻과 같이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at one's pleasure) 표현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 두성 발성등과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이, 개성있는 목소리로 마음껏 부르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방이나 흥내로 시작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만의 새로운 느낌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의 음악성에 감탄하며, 다양하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 67:5)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과 다양하게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한가지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멜로디'만의 단음 합창이 아닌 화음을 넣은 찬양을 함께 드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음색을 고려하여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파트를 조직하고, 비교적 쉬운 합창곡을 연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악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녹음된 곡을 수차례 들려주고, 건반 악기가 없으므로 인하여 아쉽지만 '기타'로 정확한 음정을 확인하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라서 모



두들 의욕이 넘쳤지만, 악보대로 음정을 정확히 낼 수 있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가까스로 음정대로 소리를 내지만, 막상 노래 전체를 함께 부를 때에는 감정이 앞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각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원치않는 '에드립'이 섞인 새로운 (불협) 화음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질병처럼 정확하지 않은 음정이 계속 반복되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수없이 4부 합창을 남자, 여자의 혼성 2부 합창으로 단순화 하고, 같은 곡을 거의 3개월 이상 연습한 뒤에야 겨우 악보와 비슷한 화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인하여 화음을 만들어 가는 학생들은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 욕심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정형화된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조심스러움과 괜히 시작했다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음을 낼 수 있는 '건반 악기'가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키보드'를 장만하여 학생들의 숨어있는 음의 자리를 찾아 가기 시작하고, 악보를 보는 기본도 조금씩 가르치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기타와 키보드 담당자로 정하는등 새로운 경험을 기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 113:1)**

 지난 1년 동안 제자 훈련에 참여했던 25여명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10명의 학생들이 금년 3월말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마띠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디고스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두학교를 찾아 다니느라 바쁜 졸업 시즌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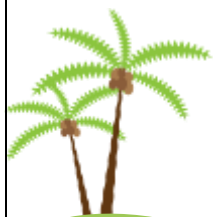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졸업하는 10명 모두가 인근 대학에서 4년간 공부 할 수 있도록 선교 장학금을 후원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당시, 지원한 많은 학생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3번 이상 결석을 하면 자동 탈락을 하게 되는 강력한 규칙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남은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10명이 대학에 진학하며 선교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학생들의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함과 진지함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 연약한 학생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졸업하는 10명 모두가 인근 대학에서 4년간 공부 할 수 있도록 선교 장학금을 후원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당시, 지원한 많은 학생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3번 이상 결석을 하면 자동 탈락을 하게 되는 강력한 규칙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남은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10명이 대학에 진학하며 선교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학생들의 나이는 어리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함과 진지함에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 연약한 학생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종들이 찬양하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민 6:24)**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학원 선교를 위하여
3.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4.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